"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앞장"

광주 서구 '화정2동 희망기동대'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 취지…올해 4년차

상반기 찾아가는 방문통해 100여가구 도움

광주 서구 화정2동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위기가구발굴단 '화정2동 희망기동대'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올해 4년차를 맞은 '화정2동 희망기동대'는 화정2동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위기에 처해있는 동네 주민들에게 주민 주도의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화정2동 희망기동대는 지난 1월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 230세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2월에는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활용해 5,800세대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섰다.

또, 3월에는 40여개의 원룸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희망기동대가 방문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확인하면 동 복지공무원은 해당 세대를 방문해 현장확인 및 상담 후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올 해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해 지원한 세대만 100여 가구에 달하며, 그 가운데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급여 지원은 20여 세대, 민간자원을 연계한 후원금품 지원은 125여건에 이른다.

지난 24일에는 고독사 위험에 있던 1인 중장년 세대에 집안 대청소를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대상자는 척추측만증과 당뇨합병증 등으로 청소가 힘든 상황으로 집과 베란다에는 온통 쓰레기와 폐가전 등 적치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화정2동 희망기동대는 쌓인 쓰레기들을 치우고 집안을 청소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보장협의체에서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침대를 지원하고, 매월 밑반찬을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키로 했다.

화정2동 보장협의체 고희자 위원장은 "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많은지 몰랐다."며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작은 온정의 손길이지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아라 기자

영암군, '영암군노인복지회관' 탈바꿈 본격 추진

5월 이후부터 증개축…하반기 개관 예정

영암군의 노인복지회관이 오는 5월 이후부터 시설 전면 리모델링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증개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군은 2002년부터 영암군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어르신을 위한 여가·취미활동과 건강증진, 일자리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와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5월 이후부터 증개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3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 총 1,525㎡ 규모로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지하1층 기계실, 1층 노인회 사무실, 식당, 안내실, 북쉼터, 휴게실, 2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회의실, 건강증진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며, 이용 어르신과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도 설치된다.

특히, 2층에는 기존 운영하던 회의실과 건강증진실을 확장하여 다양한 특강과 각종 건강보조기구(운동기구) 등을 비치해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증개축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운영 중이던 (사)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사무실은 5월 6일부터 영암국민체육센터 2층으로 임시 사무실을 이전하여 준공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교육지원청 "장애·비장애 학생 어울려 배운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지원단 협의회 실시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완)은 지난 24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함평통합교육지원단을 발족하였다. 통합교육지원단은 현장의 요구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통합교육지원단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통합교육을 위해 의견을 묻고 장애 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통합교육지원단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 학생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집단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학급의 구성원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어울림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희 교육지원과장은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어울러 배우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특수교사와 통합교사가 협력해 주길 바라며,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코로나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단체 535개 모여 출범

53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뭉쳤다. 코로나19 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535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연대의 힘을 발휘해보자는 취지로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감염병 재난과 경제 위기가 몰고 오는 고통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특히 여성, 노인, 노동자와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이 가해진다"며 "각 부문·영역별, 지역별 대책위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극복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수연구자를 대표해 참석한 김진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표는 "대학의 경우 정규직 교수는 면대면 강의를 할지, 인터넷 강의를 할지 정도의 문제를 겪고 있겠지만 비정규직 교수는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정부에 △공공의료 확대 △고용안정 보장 및 해고 금지 △취약계층 생계지원 신속 집행 △강제 퇴거 중단 △농산물 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그 지출은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최이슬 기자